

우주론에서 양자·진화·분자생물학까지  
인공지능 시대에 알아야 할 과학 지식



**과학이론 20**

호소카와 히로아키 지음  
김정환 옮김

지난 20세기 과학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했다. 21세기인 오늘은 이전 세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 일터엔 자동차와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와 세탁기 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입고 먹고 마시는 많은 것을 현대 과학에 빚지고 있다. 인류는 문명이 태동한 이후 다양한 지식 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과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 타 분야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과학을 알지 못하면 경제는 물론 문화와 예술 등 사회 전반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 지식은 더 이상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이 시대의 교양이 돼 버렸다. 첨단기술과 과학 이론을 대중에게 소개 해온 일본의 과학 전문 작가 호소카와 히로아키가 펴낸 '과학이론 20'은 인공지능

시대에 알아야 할 과학 교양의 지침서이다. 일반인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우주론, 양자역학, 진화론, 분자생물학까지 아우른다. 책은 '재미없는 과학'이라는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과학이론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책 보는 재미를 더해줄 수 있도록 관련 사진과 그림, 도표 등을 첨부했다. 풍부한 시각 자료들은 특히 물리학과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매우 난해하지만, 시각 이미지가 많이 삽입돼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책에는 소립자론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표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2012년에 발견된 힉스 입자도 소개하며 2016년에 검출된 중력파 또한 놓치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아직은 검증 전 단계이지만 초대칭 이론과 초끈 이론 또한 해설한다. 저자는 과학이 실생활과 밀접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제 선정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시작은 무엇인지, 인류는 어떻게 진화했는지,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지 등을 다룬다. <보노스·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어지는가

**비밀의 도서관**

올리버 티얼 지음  
정유선 옮김



'철도의 발명과 '셜록 홈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근대의 크리스마스 개념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얼마 전에 종영된 '알쓸신잡'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다. 유시민, 김영하, 정재승 등 분야를 넘나드는 잡학박사들이 여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펼쳐낸다. 이들의 이야기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재미도 있고 상식도 된다. '알쓸신잡'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알쓸신잡'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나 상식은 책이 매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이 우리의 삶과 이어지는 실증적이면서도 재미난 사례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삶이 책(문학)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평균 서적구입비가 1만5335원이며 하루 평균 독서



빅토리아 시대는 과학의 발달로 어느 시대보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시대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모습.

시간은 고작 6분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책의 세계를 들여다 보면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국 러프버러대학 교수인 올리버 티얼이 쓴 '비밀의 도서관'은 삶과 연관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찾아간다. '호메로스에서 케인스까지 99편으로 읽는 3000년 세계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문학작품은 물론 여행서, 과학서, 요리책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빅토리아시대는 획기적인 과학 발전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였다. 철도의 발달로

기차로 출퇴근하며 소설을 읽는 '철도시대 독자'가 생겨났다. 이들은 빠르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원했는데, 그 결과 '셜록 홈즈' 같은 탐정소설이 나오게 됐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19세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높였다. 워싱턴 어빙은 익살스럽게 쓴 '뉴욕사'를 통해 뉴욕이라는 도시에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여했다. 찰스 디킨스는 소설 '중소리'나 '크리스마스 캐럴'의 성공으로 근대적 개념의 크리스마스 명절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

했다. 소설 발간 이듬해부터 크리스마스 카드가 발송됐다. 책에 소개된 99명의 저자, 99권의 책 중에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을 터다. 작가인 올리버 티얼 또한 모두가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기에 그 책을 읽은 사람도 모르고 지나갈 법한 정보들을 은근슬쩍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단테의 '신곡'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을 제시한다. 저자가 책에서 '신곡'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즐거거나 교훈이 아니다. 방귀를 세계 내뿜는 악마가 등장한다는 것과 같은 '알쓸신잡'이다. 즉 악마는 단테에게 지옥을 안내하며 엉덩이로 나팔을 불고, 방귀를 다른 악마들에게 내뿜으며 길을 헤쳐 나간다. 또한 그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는지도 보여주는데, 바로 유다와 같은 배신자 등이다. 책에는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으나 현재는 잊혀진 책들이 등장한다. 반대로 당시에는 혹평을 받았으나 후일 '위대한 고전'으로 불리는 책들도 소개된다. 리처드 마시의 '막정벌레'는, 빅토리아시대 성공한 공포소설이었지만 현재 이 소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출간 당시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로 평가 받는 책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책에는 알아도 쓸데없지만 언젠간 써먹을 수 있는 문학적 지식들이 담겨 있다. <생각정거장·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나라에 시집간 비운의 여자 의순공주의 삶



**의순공주**  
설 흔 지음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의 근족(近族)이나 대신의 딸 가운데' 참한 여자를 청황실에 시집 보내라고 요구한다. 오랑캐 나라에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여긴 효종은 이내 금근군이게운의 딸 예숙을 양녀로 삼아 '의순공주'라고 작위를 내리고 진짜 공주를 대신에 시집보낸다. 28세에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의순공주의 생애를 담은 최초의 소설이 나왔다. 제1회 창비청소년도서상 대상을 수상한 설흔 작가가 펴낸 '의순공주'는 사료 속에 단 한 줄도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

었던 비운의 여자 의순공주의 삶을 오늘 의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효종이 의숙에 내린 '의순공주(義順公主)는 '정의에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금과 친아버지가 담합해 이루어진 결혼을 '정의'라고 규정할 것이 아이러니하다. 책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죽두리 하나만을 남긴 채 사그라진 한 여성의 처연한 인생을 그린다. 한편으로 조선시대 왕과 근족으로 대표되는 조선 남자들의 비겁함과 '유교의 도리'라고 불리는 덕목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활행녀가 변해서 되었다는 화냥년! 그 단어가 바로 6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의순공주를 대하는 재야의 솔직한 '시각'이었어요. 없는 사실도 일부러 만들어냈을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극 부각시키고 싶은 단어였어요."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루브르에 지켰다면 ... 유럽의 보석 작은 미술관 가세요



**유럽의 작은미술관**  
최상운 지음

휴가철을 맞아 유럽여행을 떠난 사람이라면 미술관 앞에 줄서고 있는 관람객들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나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은 말 그대로 북새통이다. 이 때문에 일부 관광객은 대형 미술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작지만 특별한 미술관을 찾기도 한다. 인파에 떠밀려 쫓기듯 관람하느니 편안하고 느긋한 감상을 하기 위해서다. 이 책은 이런 현명(?) 독자들을 위

해 유럽 11개 도시의 보석같은 미술관 17곳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미술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약탈로 부터 피신해온 피카소의 그림 수백 여점을 만날 수 있고,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미술관에서는 클림트의 우아함과 예쁜 실례의 퇴폐미에 매혹되기도 한다. 또한 네덜란드의 마우리츠호이스미술관에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걸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런던의 월리스켈렉션에서는 귀족미가 돋보이는 앙투안 와토의 '삶의 매혹'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막스 에른스트의 '신부의 복장'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저지의 동선을 따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빠진다. <윌유문화사·1만6000원> /전은재기자 ei6621@kwangju.co.kr

유럽 골프장은 주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 있다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이다겸·최영목 지음

"골프는 일상 공간 깊숙한 곳, 그냥 동네 언저리에 오래된 느티나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골프의 근원적 매력은 뭘까?" 골프전문지 편집장을 지낸 아내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남편이 오랫동안의 꿈을 찾아 유럽으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부부는 영국 런던의 '물든 골프클럽'에서 시작해 스페인 '오이타 보스 투스'까지 180일간 유럽 15개국 82개 골프장을 순례하는 대장정을 했다.

'세계 100대 골프장' 같은 명문 골프장보다는 여행 경로를 중심으로 동네 골프장을 찾아 다채로운 골프문화를 들여다 봤다. '경관이 빼어나지만 사람냄새가 나는 스토리가 별로 없는' 한국 골프장과 달리 '나름대로의 아우라와 향기가 있는' 유럽 골프장들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든 지역공동체의 중심지였다. '골프의 성지'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독일 등지의 다양한 골프문화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1880년 원산 향 개항 이후 해관(세관) 업무를 맡은 영국인들이 원산향 인근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세웠고, '영친왕' 이은이 프랑스의 한을 골프로 달래며 군자리 골프코스(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설립을 지원했다는 한국 골프 초창기 역사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온다. <수류산방·3만9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미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